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테러리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Terrorism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Dae Sung Lee*, Sang Il Ryu**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ro, Busanjin-gu,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used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scholars, governmental institutes and anti-terrorism law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errorism. First, the most frequent key words were commonly “goal”, “violence”, “politics” and “behavior”. The result shows that terrorism accompanies violence to achieve political goals differently from general crimes. Second, the concepts of “terror” and “terrorism” were used commonly. There could be some disputes a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aspect of purpose. Third, there were two aspects in the method. There were the same opinions on “violent behavior” in the physical aspect and “menace” and “terror” in the psychological aspect. Fourth, there were two aspects in the damaged ones. There were words like “nation”, “territory” and “government” in the aspect of objects and “individuals”, “lives”, “human beings” and “physical bodies” in the aspect of human beings.

Key words: terror, terrorism, violent behavior

국문초록

이 연구는 테러리즘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학자, 국가기관,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목적”, “폭력”, “정치”, “행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테러리즘이 일반범죄와 상이(相異)하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수반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념(概念)

* 1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1-890-2195. E-mail. dorian3145@daum.net

** Tel. +82-51-890-4291. E-mail. samuel@de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Dec. 30, 2014 / Revised: Jan. 12, 2015 / Accepted: Jan. 20, 2015

측면에서 “테러”와 “테러리즘” 개념이 혼용(混用)되고 있었고, 목적 측면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셋째, 수단(手段) 측면을 이원화(二元化)하여, 물리(物理)적 측면의 “폭력행위”와 심리(心理)적 측면의 “위협”과 “협박” 등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였지만, 그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해(被害) 대상 측면도 이원화하여, 대물(對物)적 측면에서 “국가”, “영토”, “정부” 등이 언급되었고, 대인(對人)적 측면에서 “개인”, “생명”, “인간”, “신체” 등이 나타났다.

주제어: 테러, 테러리즘, 폭력행위

I. 서론

2010년 12월 18일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Jasmine Revolution)은 중동 전역(全域)에 큰 반향(反響)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튀니지의 벤 알리(Ben Ali)정권, 이집트의 무바라크(Hosni Mubarak)정권, 리비아의 카다피(Qaddafi)정권 등이 붕괴되었다. 이를 국제사회는 ‘아랍의 봄’이라고 칭하면서, 중동지역의 정치·종교·자원 등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장훈태, 2014: 244-245).

이러한 여파(餘波)로 인하여, 현재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反)정부군 간에 내전(內戰)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바레인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중동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알 카에다(Al-Qaeda) 조직의 활동에 주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s)가 더 큰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이슬람 국가(IS)는 이슬람(Islam)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이슬람 율법(sharia)에 따라 무슬림(muslim)지도자가 통치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은 ‘제2의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고 있다(이대성·김상원, 2014: 65-66).

이러한 시점에 학자, 실무가 집단, 국가기관 등은 테러리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접근을 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테러리즘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학자, 국가기관,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의 견해를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대(對)테러리즘 관련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분석의 틀

1. 분석의 방법 및 절차

최근 국내 학자들은 인간의 언어에 담긴 메시지(message)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배연석 역(譯), 2001; 신준섭·김지수, 2011: 173-203; Lim, 2003: 328-366). 언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분석방법론이 사용되었지만, 기존에 활용된 전통적 내용 분석기법은 연구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분석항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 비용도 많이 소모되었으며, 외적 타당성도 제한되어 연구자의 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박한우·Leydesdorff, 2004: 1377-1388; Rice & Danowski, 1993: 369-397). 이러한 전통적 내용분석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언어네트워크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인데, 이 연구방법론은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프로그램과 NetMiner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하여 사용하는 분석기법을 말한다(박한우, 2006).

테러리즘 개념 정립에 관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절차를 3단계로 진행하였다. 우선,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을 통하여 주제를 자료화 및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핵심단어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Krkwic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차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핵심단어에 대한 행렬매트릭스 방정식을 완성한 후, 넷-마이너(NetMine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핵심단어 간의 사회네트워크 연결망 또는 결합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사이람, 2010; 김용학 2004), 이는 언어와 언어가 결합하면 다른 의미의 새로운 언어를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2. 분석의 대상

테러리즘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학자 15명, 국가기관 6곳, 그리고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6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구분	분석대상
학자	15
국가기관	6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6
총계	27

1) 학자의 견해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한 학자의 견해를 국내외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이대성·김종오, 2007: 397-398).

<표 2> 국내외 학자들의 개념

국내학자	내용
구광모	강제와 위압의 수단으로써 테러를 체계적으로 활용한 것을 의미
구창희	강제와 위압의 수단으로 테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혁명기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사회 또는 정부를 협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정치적 극단주의의 한 형태
최진태	주권 국가 또는 특정단체가 정치·사회·종교·민족주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또는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단체·공동체·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심리적·폭력행위를 총칭
이황우	정치적·종교적·민족적 동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정부·국제기구의 작위·부작위를 강요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의 공포를 유발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공공의 안전 및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폭력행위로 정의
제성호	정치적인 목적·주의·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을 통해 인명·재산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비인간적·반문명적인 성격의 범죄행위를 의미
김두현	정치·사회적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 또는 시설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계획적인 불법폭력행위를 의미
이대성	개인 또는 테러조직이 정치·이념·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의미
국외학자	내용
Paul Wilkison	강압적 협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테러범의 정치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공동체 또는 정부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는 행위이며 살인과 파괴 그 위협을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Ernest Evans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회집단에 사용되는 폭력을 통한 하나의 전략
Walter Laqueur	한 국가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변화시키는 현상으로서 지도층에 대항하거나 또는 소수 민족이나 종교집단을 대상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한 내란·쿠데타·게릴라 활동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치폭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
Bard E. O' Neil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분란전의 형태이며 장단기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독단적이며 부도덕한 폭력을 사용
R. S. Cline & Yanah Alexander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폭력사용의 한 형태로 저항도 수준의 폭력을 사용하는 전쟁
George Landner	정치적 상징효과를 얻기 위한 폭력의 사용 또는 그 위협으로써 이는 직접적인 희생물보다 더욱 포괄적인 공격목표와 대상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가할 목적으로 기존 정권에 대항하는 행위
Grant Wardlaw	기존의 권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폭력의 사용·위협이며 또한 이러한 테러행위는 정치적 요구에 순응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즉각적인 희생자보다는 국가나 집단에 극단적인 공포·두려움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T. P. Thornton	폭력사용이나 폭력의 위협을 포함한 극히 비정상적인 수단에 의해 정치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획적인 상징적 행위

2) 국가기관 및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의 견해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한 국가기관 및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의 견해는 <표 3>과 같다(국가정보원, 2006; 박준석, 2006).

〈표 3〉 국가기관 및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의 개념

국가기관	내용
한국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납치, 시설·장비 폭파 등 국제협약에 규정된 행위
한국 국가정보원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한국 자치행정부	테러리스트 등이 각종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이익 또는 국민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자행하는 행위
미국 국무부	국가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체나 국가의 비밀요원이 보통 다중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비전투 목표물에 대해 자행하는 미리 계획하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폭력
미국 중앙정보부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분쟁의 한 형태이며 장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적, 독단적, 비도덕적인 폭력
독일 헌법보호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법에 명시된 중범죄 행위로 규정한 살인·납치·방화·폭파 또는 그 예비행위를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전투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
한국 대통령훈령 제47호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를 의미
UN 안보리 결의안	불법적으로 타인을 살해하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타인을 납치하는 자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기도하는 자 및 동 행위의 종범으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
미국 Patriot Act of 2001	일반시민을 협박하기 위하여 미연방 각주 형법에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거나 미연방과 각주 관할지역 내에서 자행시 범죄행위가 되는 무력행위 또는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미합중국 영토 외에서 발생하거나 협박강요대상자 또는 범죄자·망명지 등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등이 다국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를 의미
영국 Terrorism Act 2000	테러행위를 자행하였거나 참여·준바·지원·선동하였거나 또는 테러와 연계된 조직으로서 담당기관의 장이 지정한 조직을 의미
캐나다 Anti-Terrorism Act 2001	테러 또는 테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또는 테러조직으로 지명된 테러조직의 혐의체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테러자금의 사용·관리·지원·테러자금에 대한 정보 미신고자, 테러자금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직간접적으로 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지원한 자, 테러를 방조한 자 등을 포함
이스라엘 Prevention of Terrorism Ordinance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 또는 살인을 자행하는 폭력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에 종사하는 자의 집단·결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테러조직 구성원은 테러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테러조직의 활동·목적에 선전하거나 또는 테러조직을 위하여 자금, 기타 재화를 지원한 자를 포함

IV. 분석 결과

1. 핵심주제어 분석

테러리즘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학자, 국가기관, 그리고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학자들의 분석에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폭력”, “정치”, “목적”, “행위”, “폭력사용”, “달성”, “개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기관의 분석에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목적”, “정치”, “폭력”, “테러”, “국가”, “납치”, “폭파”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대(對)테러

리즘 관련법의 분석에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행위”, “테러”, “테러리즘”, “테러조직”, “목적”, “협박”, “폭력”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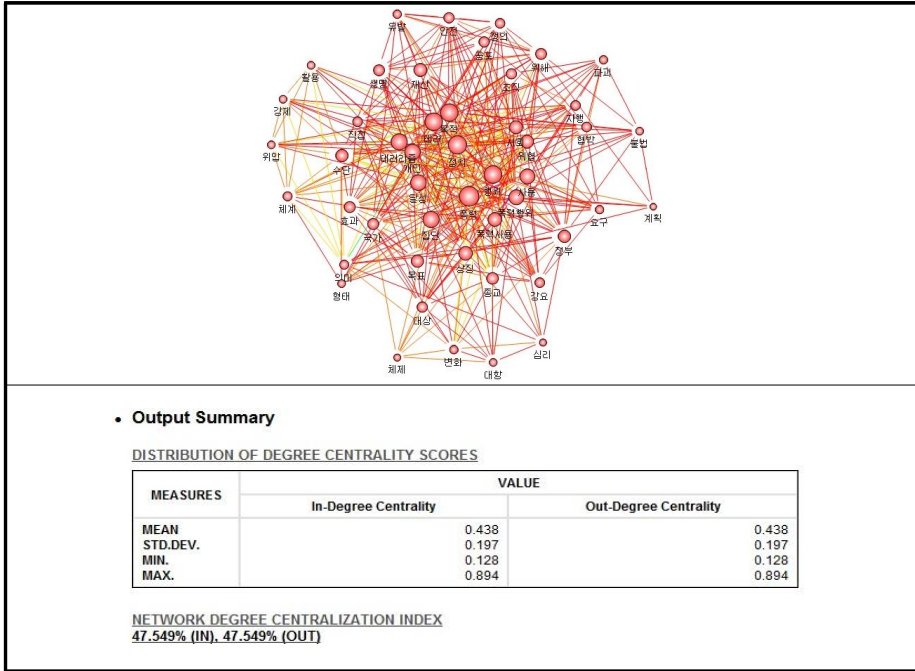
<표 4> 핵심주제어 분석 결과

학계		국가기관		대테러 관련 법	
빈도	핵심 주제어	빈도	핵심 주제어	빈도	핵심 주제어
17	폭력	5	목적	17	행위
15	정치	4	정치	15	테러
11	목적	4	폭력	9	테러리즘
9	행위	4	테러	8	테러조직
9	폭력사용	4	국가	6	목적
9	달성	3	납치	5	협박
7	개인	3	폭파	5	폭력
6	테러리즘	3	행위	4	이념
6	테러	3	국제	4	자행
5	폭력행위	2	계획	4	정치
5	위협	2	국제협약	4	종교
5	수단	2	동기	4	폭력행위
5	사회	2	목적달성	3	미연방
4	집단	2	자행	3	발생
4	종교	2	지속	3	범죄행위
4	정부			3	생명
4	의미			3	신체
4	목표			3	영도
3	형태			3	영향
3	협박			3	위협
3	재산			3	자원자
3	위해			3	타인
3	상징			3	테러자금
3	변화				
3	국가				
3	공포				

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테러리즘 개념 정립 분석

1) 학자의 테러리즘 개념

학자를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 <표 5>와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연결 중심성 값이 높은 주제어 1순위는 “폭력”, “폭력행위”, “사용”, “폭력사용”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정치”, “테러”, “목적”으로 밝혀졌으며, 3순위는 “테러리즘”, “개인”, “달성”, “집단”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상징”, “위협”, “사회”, “재산”, “수단”, “정부”, “목표”, “종교”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학자들의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

<표 5> 학자들의 연결 중심성 분석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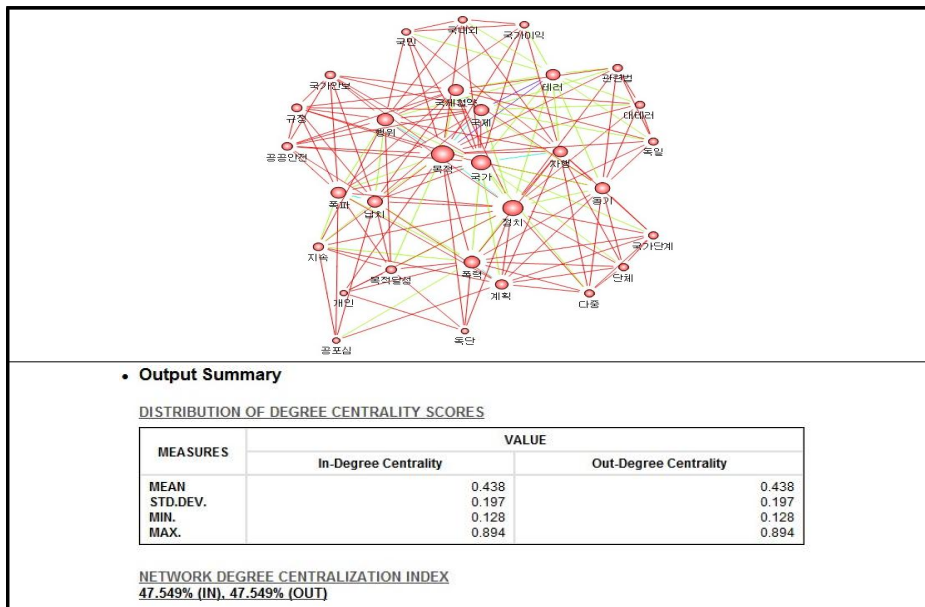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폭력	0.893617	0.893617
정치	0.829787	0.829787
목적	0.808511	0.808511
행위	0.787234	0.787234
테러	0.787234	0.787234
테러리즘	0.702128	0.702128
집단	0.702128	0.702128
달성	0.680851	0.680851
개인	0.680851	0.680851
폭력행위	0.638298	0.638298
사용	0.638298	0.638298
폭력사용	0.553191	0.553191
상징	0.553191	0.553191
위협	0.531915	0.531915
사회	0.510638	0.510638
재산	0.510638	0.510638
수단	0.489362	0.489362
정부	0.489362	0.489362
목표	0.489362	0.489362
종교	0.446809	0.446809
생명	0.425532	0.425532
위해	0.404255	0.404255
국가	0.404255	0.404255

<표 5> 학자들의 연결 중심성 분석값(계속)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효과	0.404255	0.404255
조직	0.382979	0.382979
공포	0.361702	0.361702
안전	0.361702	0.361702
대상	0.361702	0.361702
협박	0.340426	0.340426
정의	0.340426	0.340426
강요	0.340426	0.340426
직접	0.319149	0.319149
자행	0.319149	0.319149
의미	0.297872	0.297872
체계	0.297872	0.297872
변화	0.276596	0.276596
요구	0.276596	0.276596
파괴	0.255319	0.255319
유발	0.255319	0.255319

2) 국가기관의 테러리즘 개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 <표 6>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연결 중심성 값이 높은 주제어는 “목적”, “정치”, “국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위”, “폭력”, “납치”, “폭파”, “국제”, “국제협약”, “동기”, “테러”, “자행”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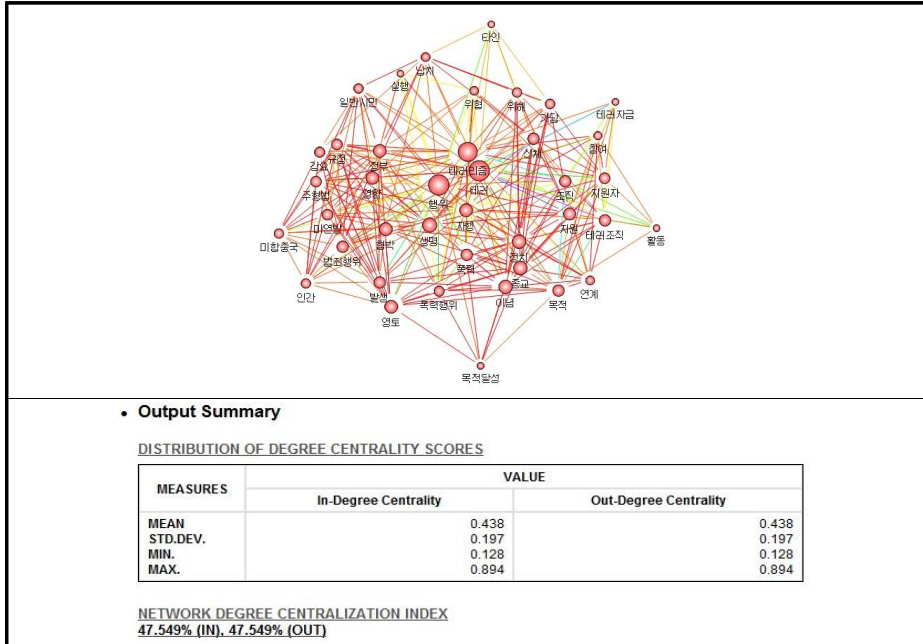
<그림 2> 국가기관의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

<표 6> 국가기관의 연결 중심성 분석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목적	0.827586	0.827586
정치	0.758621	0.758621
국가	0.724138	0.724138
행위	0.586207	0.586207
폭력	0.551724	0.551724
납치	0.517241	0.517241
폭파	0.517241	0.517241
국제	0.517241	0.517241
국제협약	0.517241	0.517241
동기	0.517241	0.517241
테러	0.482759	0.482759
자행	0.482759	0.482759
계획	0.413793	0.413793
목적달성	0.310345	0.310345
지속	0.310345	0.310345
공공안전	0.310345	0.310345
국가안보	0.310345	0.310345
규정	0.310345	0.310345
관련법	0.275862	0.275862
국가단계	0.275862	0.275862
다중	0.275862	0.275862
단체	0.275862	0.275862
대테러	0.275862	0.275862
독일	0.275862	0.275862
국가이익	0.241379	0.241379
국내외	0.241379	0.241379
국민	0.241379	0.241379
개인	0.172414	0.172414
공포심	0.172414	0.172414
독단	0.172414	0.172414

3)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의 테러리즘 개념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 <표 7>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연결 중심성 값이 높은 주제어는 “행위”, “테러”, “테러리즘”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명”, “이념”, “정치”, “종교”, “협박”, “자행”, “정부”, “영토”, “지원”, “목적”, “폭력”, “테러조직”, “범죄행위”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

<표 7>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연결 중심성 분석값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행위	0.897436	0.897436
테러	0.897436	0.897436
테러리즘	0.846154	0.846154
생명	0.589744	0.589744
이념	0.564103	0.564103
정치	0.564103	0.564103
종교	0.564103	0.564103
협박	0.538462	0.538462
자행	0.538462	0.538462
영향	0.538462	0.538462
정부	0.538462	0.538462
영토	0.512821	0.512821
지원	0.487179	0.487179
목적	0.461538	0.461538
폭력	0.461538	0.461538
발생	0.461538	0.461538
신체	0.461538	0.461538
조직	0.461538	0.461538
테러조직	0.435897	0.435897
범죄행위	0.435897	0.435897
미연방	0.410256	0.410256
지원자	0.410256	0.410256
규정	0.410256	0.410256
주행법	0.410256	0.410256

<표 7>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연결 중심성 분석값(계속)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폭력행위	0.358974	0.358974
강요	0.358974	0.358974
가담	0.333333	0.333333
미합중국	0.333333	0.333333
위해	0.333333	0.333333
인간	0.333333	0.333333
일반시민	0.333333	0.333333
위협	0.307692	0.307692
납치	0.307692	0.307692
연계	0.307692	0.307692
참여	0.282051	0.282051
목적달성	0.205128	0.205128
실행	0.205128	0.205128
테러자금	0.179487	0.179487

V. 결론

이 연구는 테러리즘에 관한 개념정립을 위하여 학자, 국가기관, 그리고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의 내용을 언어네트워크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주제어의 빈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 국가기관,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서 공통적으로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목적”, “폭력”, “정치”, “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러 또는 테러리즘이 일반범죄와 상이(相異)하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수반(隨伴)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표 7> 빈도 분석결과 비교

구분	학자	국가기관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개념	테러 + 테러리즘	테러	테러 + 테러리즘
주체	개인 + 집단	개인 + 단체	조직 + 지원자 + 테러조직
목적	정치 + 종교 + 사회	정치	정치 + 종교 + 이념
수단	물리(物理)적 측면	폭력	폭력
	심리(心理)적 측면	위협 + 협박 + 공포 + 강요	협박 + 위협 + 강요
피해 대상	대물(對物)적 측면	재산 + 정부 + 국가	정부 + 영토
	대인(對人)적 측면	생명	국민 + 개인 + 공공안전

둘째, 개념(概念) 측면에서 학자와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테러”, “테러리즘” 두 개념을 혼용(混用)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은 “테러”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셋째, 주체(主體) 측면에서 학자, 국가기관,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개인”, “집단”, “지원자”, “단체”, “테러조직”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테러범과 테러단체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

넷째, 목적(目的) 측면에서 학자는 “정치”, “종교”, “사회”를, 국가기관은 “정치”를,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정치”, “종교”, “이념”이라고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섯째, 수단(手段) 측면을 이원화(二元化)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물리(物理)적 측면에서 학자, 국가기관,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공통적으로 “폭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폭력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 ii) 심리(心理)적 측면에서 학자는 “위협”, “협박”, “공포”, “강요”를, 국가기관은 “공포심”을,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협박”, “위협”, “강요”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심리적 측면에서 위협, 강요, 공포, 협박 등을 수반(隨伴)한다는 것은 예비·음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피해대상(被害對象) 측면에서도 이원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대물(對物)적 측면에서 학자는 “재산”, “정부”, “국가”를, 국가기관은 “국가이익”, “국가안보”, “국가”를,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정부”, “영토”를 언급하고 있다. ii) 대인(對人)적 측면에서 학자는 “생명”을, 국가기관은 “국민”, “개인”, “공공안전”을,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생명”, “인간”, “신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물(對物)적 피해와 대인(對人)적 피해가 모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핵심주제어에 대한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3개의 군집(群集)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 “폭력”, “폭력행위” 등의 군집이 1순위, ii) “정치”, “목적” 등의 군집이 2순위, iii) “개인”, “집단” 등의 군집이 3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테러 또는 테러리즘을 연구하는 학문분야가 법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군사학 등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목적”, “정치”, “국가”로 도출되었다. 이는 대(對)테러리즘 활동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자국(自國)의 정치이념과 자국민(自國民)의 안전을 수호(守護)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安保)와 국민 안전을 위협(威脅)하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테러범 또는 테러단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행위”, “테러”, “테러리즘”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국가들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규범적(規範的)측면에서 테러 또는 테러리즘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成立)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우선, 테러와 테러리즘의 빈도와 연결

중심성에 큰 차이가 없어서, 혼용되고 있는 두 주제어의 개념을 정립(定立)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각 분야별로 테러와 테러리즘의 목적과 폭력행위의 범위에 차이(差異)가 있으므로, 목적과 폭력행위의 범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에 테러리즘과 관련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2006. 테러방지에 관한 외국의 법률 및 국제협약.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박준석. 2006. 뉴테러리즘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 박한우. 2006. 한국어 메시지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소프트웨어의 소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강자료집.
- 박한우, Leydesdorff, L. 2004. 한국어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6(5): 1377-1388.
- 배연석 역(譯). 2001.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사이람. 2010. 넷마이너에 의한 사회네트워크 분석. 서울: 사이람.
- 신준섭, 김지수. 2011.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 프레임 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173-203.
- 이대성, 김종오. 2007. 테러리즘에 관한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 *법학연구*. 28: 391-419.
- 이대성, 김상원. 2014.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분석: 학계와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술논문 비교. *한국테러학회보*. 7(3): 63-97.
- 장훈태. 2014. 분쟁과 테러지역에서의 기독교 선교방안. *성경과 신학*. 70: 241-275.
- Lim, Elvin T. 2002. Five Trends in Presidential Rhetoric: An Analysis of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Bill Clint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2(2): 328-366.
- Rice, R. E. and J. A. Danowski. 1993. Is It Really just like a Fancy Answering Machine? Comparing Comments and Semantic Networks about Voice Mail.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0: 369-397.

이대성: 동국대학교에서 형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4년),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테러리즘과 관련된 대(對)테러법률, 대(對)테러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은 “북한에 의한 테러유형과 대응방안(2004)”,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2005)”,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

(2007)”, “테러범죄 동향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2008)”, “해외인질 테러범죄에 관한 법적 연구(2009)”, “한국을 대상으로 한 뉴테러리즘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2010)”, “국제스포츠이벤트 테러리즘의 분석과 향후전망(2011)”,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분석과 향후전망: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권기를 중심으로(2012)”, “북한의 전자기파(EMP)위협에 대한 검토(2013)” 등이 있다(dorian3145@daum.net).

류상일: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체계, 2007년),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를 거쳐, 현재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난관리, 소방행정, 재해구호, 사회네트워크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저서로는 재해구호복지론(2012, 공저), 소방행정학 개론(2011, 공저),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학에서 재난관리분야의 학문적 연구경향(2007)”, “네트워크 관점에서 지방정부 재난대응과정 분석: 미국의 허리케인과 한국의 태풍 대응사례를 중심으로(200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네트워크 분석(2008)”,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요인과 직무만족간의 관계(2009)”,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소방정책론 정립방안(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개선방향(2011)”, “한국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2012)”, “한국 위기관리 연구경향분석Ⅱ: 소방행정 분야를 중심으로(2013)”, “소방방재청장의 정책 가치지향을 통해본 재난관리정책의 변화추이(2014)” 등이 있다(samuel@deu.ac.kr).